

# 인물보다 당심에 달린 선거당락?... 무투표 당선자 폭증

## 제8회 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무투표 당선, 4년 전보다 5배 증가  
대구·광주 등 지역 쏠림현상 여전  
평균 경쟁률 1.8:1... 역대 최저수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집계해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494명이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15일 기준 중앙선관위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당선자 숫자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6명) ▲시·도의회 광역의원(106명) ▲구·시·군의회 기초의원(282명) ▲구·시·군의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어울림 마당을 열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시스

기초 비례대표의원(99명) ▲교육의원 선거(1명) 등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86명)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의 지지와 상관없이 당선증을 받게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투표 없이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 없이 당선되는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만 봐도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군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각각 강한 영·호남에 몰려 있다.

광역의원 선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지역구에서 29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광주 역시 지역구에서 2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가 11명이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북도 지역구에서 36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더욱더 문제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

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8명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 나 무소속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 인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0명 나왔다. 이 역시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 1명씩 후보를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 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모두 76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집계해 발표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선거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감 선거로 3.6대 1이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장(3.2대 1), 기초자치단체장(2.6대 1), 시·도의회 광역의원(2.5대 1) 순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여야 2차 추경 심사 돌입 신속 통과 vs 현미경 검증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내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손실보상·초과세수 문제 등 이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뉴스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

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 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尹 대통령, UAE에 조문사절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

고(故) 칼리파 대통령은 UAE 연방을 창설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2004년 아부다비 통치자 및 UAE 대통령에 즉위한 이후 재임하던 도중

지난 13일 서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조문사절단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단장)와 주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조문사절단은 1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디든 떠날 그날을 위해,  
마일리지 두둑하게 쌓아두세요!

KB국민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  
국내외 1천원당 1마일 기본적립  
해외/면세점 1천원당 1마일 추가적립(총 2마일)

•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4만 5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회금보유 등)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연신금융업의 심의필 제2022-C2b-012935호(2022.02.25~2023.02.24)

• 연체이자율: 화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